

대장 및 직장의 악성 폐쇄로 인한 자가확장형인공관 삽입술에 대한 연구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소화기연구소

유창범[✉], 권광안, 정인섭, 홍수진, 김진오, 조주영, 이준성, 이문성, 심찬섭, 김부성

목적: 대장 및 직장암의 폐쇄로 인하여 수술이 불가능한 환자에서 수술을 대신하여 대장 및 직장의 인공관 삽입술이 효과적인 치료 방법일 수 있다는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본 교실에서는 외과적 수술을 할수 없는 대장 및 직장의 악성 폐쇄에 대한 치료를 위하여 경내시경적으로 유치가 가능한 자가 확장형 니티놀 인공관의 유용성을 알아 보고자 하였다. **방법:** 대장 및 직장의 악성 폐쇄로 순천향대학교 병원에 내원한 34명에서 폐쇄부위에 경내시경적으로 자가 확장형 니티놀 인공관을 삽입한 후 성공율, 임상적 효과, 안전성 및 합병증의 추적 관찰의 결과를 분석하였다. **성적:** 폐쇄 위치는 상행결장 6예, 횡행결장 8예, 하행결장 9예, S결장 8예, 직장 3예였으며 상행결장 1예를 제외하고는 모두 유치에 성공하였다. 시술과 관련된 합병증은 횡행결장 1예에서 천공이 발생하여 1주일 후 사망하였다. 인공관 유치에 성공된 33예중 72시간내에 폐쇄로 인한 증상이 호전된 것은 30예였다. 2예에서 시술 10일과 2개월 후에 성공적으로 절제수술을 하였으며 절제가 불가능했던 32예는 추적 관찰 중 7예에서 인공관의 일탈이 발생하여 3예에서 같은 방법으로 재 유치하였다. **결론:** 직장 및 대장의 악성 폐쇄의 치료를 위한 경내시경적 자가 확장형 니티놀 인공관의 유치는 기술적으로 쉽고 안전하며 효과적으로 폐쇄를 완화함으로써 수술인 불가능한 환자에서 유용한 치료법으로 보이나 S결장과 직장 등에서 인공관 일탈의 방지를 위하여 좀더 많은 증례와 새로운 재질의 인공관 개발로 문제점 개선을 위한 연구를 지속하여야겠다.

심실 빈맥 환자에서의 임상적 경과 관찰

한성욱, 김운년, 윤혁준, 박형섭, 현대우, 허승호, 김기식, 김권배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순환기 내과

배경: 허혈성 심질환의 증가와 더불어 심실 부정맥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고, 심장 전기생리적 검사와 도자 절제술의 확대, 삽입형 제세동기등의 개발등으로 인해 심실 부정맥에 대한 진단뿐만 아니라 치료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연자들은 심실 빈맥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그 들에서의 임상적 양상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치료 방법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방법:**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에서 electrical medical record를 통해 chart review가 가능한 105명의 심실 빈맥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각 환자에서의 발현증상, 심전도 소견, 진단, 심질환의 유무 및 종류, 치료약제, 치료방법등을 관찰하였다. **결과:** nonsustained VT(NSVT)가 29명, monomorphic sustained VT가 63명, polymorphic sustained VT가 3명, 심전도상 nonsustained VT만 보였지만 심한 증상을 가져 sustained VT로 생각되는 환자가 10명이었다 NSVT군에서 남:여비는 11:18이었고 평균 50세였다. 기저 심장질환으로는 old MI, DCM이 한명씩이었고 valvular heart disease가 2명에서 있었다. 2명에서 삽입형 제세동기가 삽입되었다. 대부분 항부정맥 약제를 먹고 있었고 amiodarone이 20명, beta blocker가 4명에서 사용되고 있었다. monomorphic VT환자들은 남:여비가 39:24였고 평균 63세였다. 발현증상으로는 palpitation이 43예로 가장 많았고 syncope가 11예에서 있었다. 기저 심장질환으로는 old MI가 4명, angina가 3명, DCM이 3명, ARVD가 5명, VHD가 2명에서 있었다. 치료약제로 amiodarone이 31명, verapamil이 10명, beta blocker가 7명에서 사용되고 있었다. idiopathic VT 환자는 46명이었는데 고주파 도자 절제술을 시행한 환자가 33명이었고 그 중 11명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다. polymorphic VT를가진 3명의 환자는 모두 남자였고 기저 심장 질환은 old MI, hypertensive heart disease, ARVD들이었다. 2명에서 삽입형 제세동기를 삽입하였고 1명은 follow up loss되었다. 63명에서 평균 47개월동안 follow up 되었고 사망은 2명에서 있었고 기저 심장질환으로 DCM, VHD를 가진 환자들이 었다. **결론:** idiopathic VT를 가진 환자가 많았었고 허혈성 심질환과 동반된 심실 부정맥 환자는 아직 많지 않았다. 향후 허혈성 심질환을 가진 환자에서의 심실 부정맥에 대한 진단과 치료에 좀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